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9장 24절~37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22장(새찬송가 23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육신의 생명이 귀중하여도 영혼 구원보다 귀중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영혼의 생명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긴장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건강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설혹 건강을 잃고 죽음에 이른다 해도 길게 보면 실제로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은 언젠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칭 신자이며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37절 강해 설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성령강림은 제자들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그 수가 소수일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별다른 경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용모가 찬란하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곳에 와서 대화하는 기이한 광경을 본 것이 해당된다고 하거나 혹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보았던 광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제자들 중에 소수가 사도 바울의 낙원체험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제자들을 크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의 눈 곧 영적 상상으로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제인 크로스비(F.J. Crosby) 여사는 찢먹이 때 눈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서른 살이 된 때 이후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내 말만이 날 위하여 주 돌아 가셨나”라는 찬송가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날 크로스비는 신령한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값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가사대로 자신이 주님께 바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자신에게 시를 짓는 능력이 있으니 이를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크로스비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라는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하여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수십 편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 구세주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을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모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한 상태에 있어서 심방하였더니 저의 손을 잡고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신앙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였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라고 토박 토박 말했습니다. 눈물이 젖어 있는 그 분의 눈동자에 천국이 어른거리는 것같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한 신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느니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나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새”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을 요약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고난 받으실 메시야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제자들의 당혹감을 고려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분들을 재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에 기록된 장면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의 일들이 있던 후 8일 정도 지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곤하여 졸았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찬란한 광채로 인하여 깨어난 것 같습니다. 깨어난 즉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역사상 쌍벽을 이루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걸출한 영도자이며 율법 수여자였고, 엘리야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는 여러분의 대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고 예수님이 겪게 되는 고난은 영화롭게 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모세와 엘리야를 곧 알아본 것도 기이하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황홀지경에 빠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급하고 적극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얼떨결에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언(失言)하였다는 사실이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난 후에 제자들이 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귀중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곤하여 졸았던 장면에서 영적 각성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상태를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잠든 상태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란 불신자로서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잠자는 자’란 신자로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적 생활에 빠져 살므로 그 영이 둔감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의견상으로 죽은 사람과 방불하듯이 신자이지만 신자 같지 아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② 졸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졸고 있는 상태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에게 “왜 조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졸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은 자신이 설교를 다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육신도 그러하지만 심령이 졸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졸게 되듯이 심령이 병든 상태에 있어도 졸게 됩니다. 어쨌든 졸면 귀중한 은혜의 메시지를 많이 놓치고 맙니다. 심령이 잠자거나 졸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하거나, 신앙생활을 안일(安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③ 깨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심령이 깨어 있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귀중한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력(疲勵)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있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2-14).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았으나 다행히도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깨이기 때문에 찬란하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고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므로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여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황홀한 광경에 도취된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제시한 의견에서 올바른 분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초막과 모세의 초막과 엘리야의 초막을 각각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세주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므로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하지만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대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리나 신학이나 예언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난 후에 제자들이 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성경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튿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비체험을 한 베드로는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하며 그곳에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빛난 구름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비주의에 빠질 뻔한 체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를 체험하기를 소원해도 좋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진 것도 신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 성을 성화하니 그 큰 성이 일시에 무너진 것도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도 신비요, 바다 위로 걸으신 것도 신비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오천 명을 먹이신 것도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신비를 체험하여 버리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굳세게 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되어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교만하게 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화로 자기를 높여서 심지어 자기가 ‘재림주’ ‘구세주’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자기를 동격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합니다. 저주받고 심판 받을 행위입니다. 어떤 류의 신비주의자는 마치 베드로가 신비를 체험하자 ‘여기가 좋사오니’하면서 신비를 체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고자 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 현실감이 사라지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핑개치고 비정상적인 모임과 장소로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런 빛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비로움을 체험한 제자가 초막 셋을 나란히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하며 그곳에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빛난 구름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계시나 신비 체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고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이 사악한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맑은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산 아래에서의 생활에 활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비를 체험한 제자들을 데리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으며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은 한편으로 신비하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학생, 사회인, 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신령한 은혜와 신비한 체험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더 깊고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담대히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장면들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들을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 ① 항상 심령이 깨어 있게 하십시오.
- 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 ③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로 인하여 현실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힘을 얻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신비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은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